

## 도레이 및 미쯔비시 머티리얼 자회사들의 품질 데이터 조작과 시사점

- 고베제강에 이어 미쯔비시 머티리얼 및 도레이의 자회사들에서 제품 품질 데이터의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짐
- 품질데이터의 변경은 규격품과 근소한 차이의 제품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소재업체에서는 납기의 우선을 고려하여 「특별채용」이라는 형태로 출하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이 외양 확대를 추구하면서 자회사들에게까지 경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고객은 일본기업의 신뢰성에 돈을 지불해 온 측면도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만 담보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기에, 일본 제조업은 다시 한번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음

### □ 도레이 자회사 THC의 제품 품질 데이터 조작

- 도레이의 니가쿠(日覺) 사장은, 2017년 11월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확한 소문이 도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도레이의 자회사인 THC(Toray Hybrid Cord)의 품질데이터 조작을 발표하게 됨
- THC는 도레이의 산업자재용 섬유가공 자회사로서, 자동차용 타이어 및 호스, 벨트 등에 사용되는 화학섬유제의 보강재를 제조하면서 2008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년간에 걸쳐 정해진 강도의 품질기준(규격품)에 일치 하도록 제품검사 데이터를 조작하여 출하
  - THC의 8년간의 조작기간에 걸친 약 4만건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타이어 회사, 자동차 부품 메이커 등 13개사와의 거래에서 149건(약 1억5천만엔)의 품질 데이터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짐
  - 도레이 그룹사 내에서 금번의 부정이 발각되게 된 계기는, 2016년 7월 THC가 사내에서 실시한 회계 감사 설문조사에서 품질데이터의 변경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품질보증실장 전임과 후임 2대에 걸쳐 검사성적서의 승인단계에서 검사데이터를 변경한 것이 밝혀짐

- 도레이에 의하면 품질 데이터 변경은 규격품과 근소한 차이의 제품에서만 이루어 졌다 함
  - 규격품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소재업계에서는 납기의 우선권을 고려하여 「특별채용」이라는 형태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음
  - 단, 이 경우에는 고객 기업의 승인을 얻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함
  - 금번 데이터 조작의 경우 이러한 정식 수속을 밟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바꿔 기재한 것임
  - 「규격품과의 차이가 근소하여 품질 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에서 데이터를 바꿨다는 것임
  - 「특별채용」은 고객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이러한 절차의 번잡성을 피하고자 품질보증실장에 의한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THC의 스즈키(鈴木)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힘
- 회사 내에서 품질 데이터의 조작이 발각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단계에서 돌연히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초 데이터 조작이 법령위반이나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외부에 공표할 생각이 없었음
- 그러나 11월 초순에, 익명의 투서 및 「週刊文春」이라는 잡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기사화 하여 게재하기로 결정하자, 자주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회사 이미지 하락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기자회견을 단행하게 된 것임을 니가쿠(日覺)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언급

#### □ 미쯔비시머티리얼 자회사들의 제품 품질 데이터 조작

- 미쯔비시 머티리얼의 다케우찌(竹内) 사장은 11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쯔비시머티리얼의 자회사들에서 품질데이터의 조작이 있었음을 발표
  -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 임회하에 조사 중이며, 상세한 내용은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미쯔비시 머티리얼의 자회사인 「미쯔비시 전선공업」에서는 항공기, 자동차, 전력기기에 사용되는 봉인재에서, 「미쯔비시 신도(伸銅)」에서는 차량 및 전자기기용 동(銅)제품에서, 「미쯔비시 알루미늄」에서 품질 데이터 조작이 있었음


-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쯔비시 전선」의 거래 수량이며, 2015년 4월부터 2년 반 사이에 출하된 제품으로서, 고객사 229사,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봉인재가 약 2.7억 개(약68억 엔) 정도임
- 데이터 조작이 파악된 이후에도 약 8개월에 걸쳐 규격미달 의혹이 있는 제품을 계속 출하하여 왔으며, 이는 대응 회피 및 법령 준수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임
- 「미쯔비시 전선」과 「미쯔비시 신도(伸銅)」는 11월 중순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미쯔비시 신도(伸銅)」는 연내에 조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이나, 「미쯔비시 전선」은 제조 과정이 복잡하여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며, 12월말에 진척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고노(小野) 미쯔비시 부사장은 밝힘

#### □ 제품 품질 데이터 조작이 만연되고 있는 이유

- 「미쯔비시 전선」의 봉인재는 패킹(packing)이나 가스켓이라 불리는데, 통상 2년 정도 사용하고 교환하는 제품임
  - 비철금속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은 과품질의 제품을 요구하지만, 다소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 함. 「소모품이기에 혹 부적합하더라도 교환하면 그만이다」라는 것임
- 이러한 배경에는 치열한 수주경쟁이 있음
  - 고객이 요망하는 스펙으로 납기가 되지 않으면 경쟁사에 뺏기기 때문임.
- 도레이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거래처의 양해가 있으면 허락되는 「특별채용」의 관행이 품질데이터에 대한 감도를 둔감시킬 가능성도 있음

#### □ 시사점

- 도레이, 미쯔비시 머티리얼 모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비주력사업에서임
- 일본기업은 기업 외양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음

- 그러나 외양만 큰 대기업은 겉가지의 자회사까지 경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미쯔비시 머티리얼의 연결 자회사는 국내외에 약 120사가 있음.
  - 미쯔비시 전선은 2010년에 자회사가 되었으며, 매출액은 약 300억 엔으로서, 연결 매출액이 1.5조 엔이나 되는 그룹 매출액 속에서는 작은 부분임
  - 도레이의 경우도 THC는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년 매출액이 50억 엔~60억 엔을 넘지 않고 있음
- 고객은 일본기업의 신뢰성에 돈을 지불해 온 측면도 있기에, 그것이 무너지면 기업경영에 있어, 전략 그 자체를 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 제품의 안전성만 담보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님
  - 일본 제조업은 다시 한번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주간동양경제(2017.12.9.)